

광주비엔날레 '비상대책위' 잘 될까

# 이사진 구성·이사장 영입 '산넘어 산'

## 신규 이사 12명·'CEO형 이사장' 선임 인물난

비상대책위는 위기에 빠진 광주비엔날레를 구할 수 있을까. 신정아씨 '가짜학위' 파문에 따라 한갑수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당연직 이사들만 꾸려진 '비대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비대위는 19일 오후 2시 광주시

청에서 박광대 광주시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재단이사 종신제 폐지, 이사 숫자 대폭축소, 조속한 재단 정상화 등 사태수습과 이사회 개혁을 동시수행하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신규 이사진 선임작업과 재

단의 수장인 이사장의 선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이사진의 숫자를 기존 27명에서 20명선으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과연 미술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물을 신속히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안대로라면 당연직 이사 8명에

다 12명 가량의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규철 광주예총회장, 정광주 광주미술협회장, 박지택 시립미술관장 등을 제외하곤 국내 미술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인사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에 추진하게될 비대위에 광주시 인사나 광주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당연직 인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동안 광주시의 '입김'이 재단에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지역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신규 이사들의 전국·지역 구성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규 이사들의 중앙인사들 위주로 짜여질 경우 '지역 소외'라는 저항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짜박사' 파문으로 재단 이사장은 물론 이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한 상황에서 새로 선임될 이사들도 검증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분명해 또다른 인물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재단의 수장인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산 넘어 산'이다. 비엔날레가 매년 행사를 치를 때 마다 '돈 먹는 하마'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미술에 대한 식견을 갖춘 CEO형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흥행과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사를 찾는다는 것은 난제중의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재단 이사장이 명예직인데다 디자인 비엔날레와 비엔날레를 위해 각종 협찬금 지원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등 사실상 '뚝을 일'을 해야 하는 점도 인선작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한갑수 이사장을 영입할 당시에도 광주시는 인맥을 총가동해 삼고초려를 했다는 후문이다.

박시장은 19일 낮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갑수 이사장을 영입하는 데도 큰 애를 먹었다. 지역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알아보고 있으나 어렵다"고 토로, 재단 정상화가 난제임을 말해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신정아씨 '가짜 박사' 확인서 동국대 몇달전에 받고도 은폐

동국대 신정아(35) 조교수의 박사학위가 가짜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인 예일대 교수의 확인서를 올해 5월 이전에 전달받았어도 이를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미술협의회 관계자는 "예일대 미술학과 크리스틴 메링 교수로부터 신정아씨의 박사학위가 가짜임을 입증하는 이메일을 4월 9일 받았으며 이를 4월에 동국대 교수로 재직중인 협의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동국대측에 전달된 자료는 메링 교수의 확인서, 신정아씨의 가짜 박사논문과 표절 대상이었던 1981년 버지니아대 논문의 일부였다"라며 "이 자료를 받은 동국대 교수가 이를 학교 당국에 제출한 것은 늦어도 5월"이라고 말했다.

메링 교수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그런 학생(신정아)이나 그런 논문(신정아씨가 임용 당시 동국대측에 제출했던 가짜 박사학위 논문)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단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메링 교수는 신씨의 가짜 박사학위 논문이 지도교수 겸 심사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 인물이다.

대학미술협의회 관계자는 "2005년 임용 당시에도 대미협에서 신정아씨

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해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동국대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신씨 본인 주장과 달리 서울대에 등록한 적이 없는 사실, 예일대 미술학과에 최근 5년 간 석박사학위자 명단을 조회한 결과 신씨가 없었던 사실, 예일대 동창회 명단에 없었던 점 등이 당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동국대 관계자들이 신씨의 가짜 학위 의혹이 가짜라는 이같은 결정적 증거를 입수하고서도 묵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씨는 1994년 캔자스대에서 서양화와 관화 복수전공으로 미술 학사(BFA)학위를, 1995년 캔자스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은 뒤 2005년 예일대 미술학과에서 박사(Ph.D.)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신씨는 2005년 9월 동국대에 특채 임용됐으나 당시 동국대는 학위 확인이나 성적표 등 임용서류 접수 등 검증에 관한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 보수단체에 계란 맞은 정형근 의원

19일 오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서울 향근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향근회

관으로 들어서다 라이트코리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을 맞고 안으로 피신하고 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정형근 의원은 신 대북정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 의원에게 향

/연합뉴스

## “무안기업도시에 투자 하세요”

박준영 전남지사 베이징·상하이 4일간 유치 활동

### 무안-상하이 직항로·여수박람회 지지 등 요청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15~19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벌인 투자유치 활동은 전남의 관광자원과 무안기업도시를 중국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박 지사는 지난 18일 시진핑(習近平) 상하이시 공산당 서기와 한정(韓正) 시장을 만나 경제협력 요청과 함께 중국 정부가 2012 여수박람회 개최를 지지토록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상하이 실력자들과의 면담에서 목포항과 상하이항과의 카페리 상호 운항 및 광양·목포항과 상하이시 양산항과의 상호 정보교환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했

다. 또 무안국제공항과 상하이국제공항과의 직항로 취항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당서기는 "무안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상하이시와 전남지역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하이항공 취항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2012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진핑 서기는 올 가을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7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후계자그룹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됐다.

이어 박 지사는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자동차그룹을 방문해 전남지역에 부품생산기지와 장기적으로 완성차 공장 설치를 요청하고 상하이지역 150여개 업체를 초청,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투자설명회를 열어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베이징에서는 지양린(姜濂) 세계화인연합회 주석을 만나 차이나타운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한국경제산업단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광둥그룹 궈상둥(郭向東) 회장으로 부터 무안기업도시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unipark@

## 여수산단 진입도로 책임감리 용역업체 선정 40여 업체 물러

### 면접관 무작위 선정 입찰 투명성 높인다

#### 전남도 제비뽑기 5명 뽑아

285억 원대에 이르는 '여수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14개 컨소시엄 40여 개 업체가 물리는 등 사상 초유의 경쟁사태가 벌어지면서 전남도가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작위로 면접관을 선정,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여수~광양 간 8.5km를 잇는 여수 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4개 공구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벌이면서, 14개 컨소시엄의 책임감리원을 심사할 '면접관' 5명을 제비뽑기로 선별했다. 건설재난관리국 6·7급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관 선별은, 30여 명의 공무원 이름이 쓰인 종이를 상자에 넣은 뒤 각 공구별 대표업체 직원이 무작위로 한 장씩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누가 면접관이 되는지를 모르게 함으로써, 있을지도 모르는 비리

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은 채택한 것은 전남도가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감리원 면접은 건설국 해당 계원들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말쑥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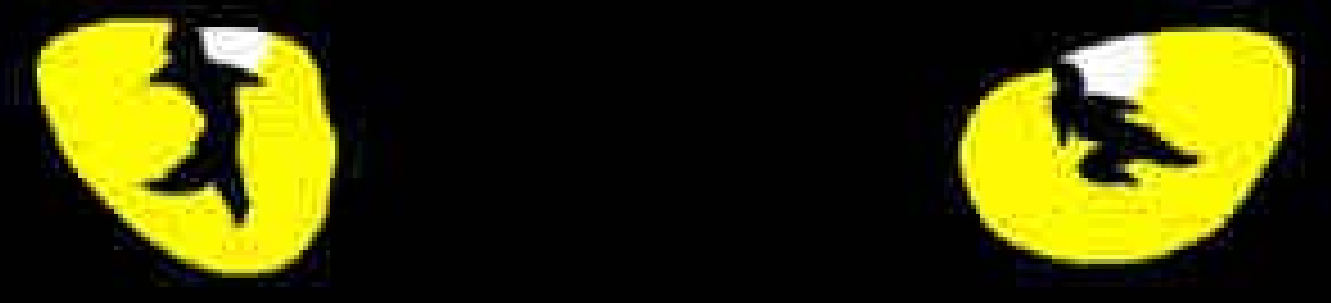
한편, 이번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에는 1공구(1.95km, 73억8200만 원)에 3개 컨소시엄, 2공구(3.27km, 34억3700만 원)에 4개 컨소시엄, 3공구(2.26km, 126억9100만 원)에 3개 컨소시엄, 4공구(1.07km, 49억9200만 원)에 4개 컨소시엄이 등록하는 등 무려 14개 컨소시엄 4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남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면접을 마친 상태로, 조만간 평가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한 뒤 용역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CI Entertainment and SEOL & COMPANY by arrangement with The Really Useful Group present

# 세계 최장기 공연에 빛나는 감동의 신화

## 브로드웨이 오리지널팀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 CATS

2007. 9. 7 (금) ~ 16 (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KCTV,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후원, 광주광역시 후원

문의: 062) 220-0541, 1588-0766